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의 리더십 (下)

I.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

1. 조선 후기의 시대 구분
2. 조선 후기 주요 정치 상황

II. 『광해군일기』를 통해 살펴본 설득과 수사

1. 역사적 예증의 수사법
2. 실리를 위한 설득

III. 『정조실록』을 통해 살펴본 설득과 수사

1. 비유의 수사법
2. 탕평을 통한 정국 구도의 조화

IV. 맺음말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의 리더십 (下)

- 『광해군일기』와 『정조실록』을 중심으로 -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정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장(場)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다. 특히 조정에서 오간 국왕과 신하 간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화가 국가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상호 간의 이해와 설득의 순간을 살펴보기에 좋은 사료다. 지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제7호에서는 설득적 측면에서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과 『세종실록』 속 조선 전기 두 군주의 기록을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조선 후기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과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시대의 실록을 살펴본다.¹⁾ 『광해군일기』²⁾에서는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펼친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정조실록』에서는 정조의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탕평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

1. 조선 후기의 시대 구분

조선왕조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기도 하고, 훈구(勳舊)와 사림(士林), 사족(士族)의 지배³⁾와 같이 정치 세력의 변화 및 경제적

1) 실록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국역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검색일: 2014.1.2.)를 근거로 하며 해당 내용은 실록의 연월까지 각주로 표기했다.

2) 광해군에 대한 기록이 『광해실록』이 아닌 『광해군일기』로 명명되는 것은 광해군이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3) 훈구파는 조선 전기의 지배세력으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대부 세력을 지칭하며 사림은 조선 중·후기

변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또는 단순히 시기에 따라 15세기를 전기, 16세기에서 17세기를 중기, 18세기에서 개항까지를 후기로 나누어 보는 시각도 있다.

보편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사회가 변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한다. 이 글에서는 임진왜란 직후 광해군부터 순종(純宗, 재위 1907-1910)까지를 조선 후기로 보고, 그 중 광해군과 정조 시대의 정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

2. 조선 후기 주요 정치 상황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전란의 상흔 속에서 민심이 동요하고, 정치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으로 조선 후기는 사림(士林)들이 당파를 이루어 분열하는 붕당정치(朋黨政治)⁵⁾가 고조에 달한 시기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력이 반대 세력에 의해 축출되는 사화(士禍)나 급격한 정권 교체인 환국(換局)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다. 당대의 이러한 주요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후에 살펴볼 『광해군일기』와 『정조실록』 속 군주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국 주도 세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개국 공신 등의 소수로 이루어진 훈구파가 정권에서 밀려나고, 지방에서 서원(書院)⁶⁾이나 향약(鄉約)⁷⁾을 기반으로 꾸준히 인재를 양성해오던 사림은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이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당파의 분열이 생겼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李瀾)은

의 지배계층으로 고려 말 신진 사대부 중 고려 왕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주장한 온건파를 가리킨다. 사족은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으로 중앙집권적 지방 통제 정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향촌사회의 수령권을 강화한 시기에 나타난 지배세력이다.

4) 여기에서 정리하는 조선 후기 정치적 특징은 오수창, 2004,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서울: 아카넷), 이성무, 2007, 『조선시대 당쟁사』(서울: 아름다운날), 이태진·김백철, 2011, 『조선후기 당평정치의 재조명』(서울: 태학사), 최창렬, 2006, “17세기 조선의 붕당정치에 관한 연구: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논총』 제13호, 153-169쪽, 최완기, 1992,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281-284쪽 을 주로 참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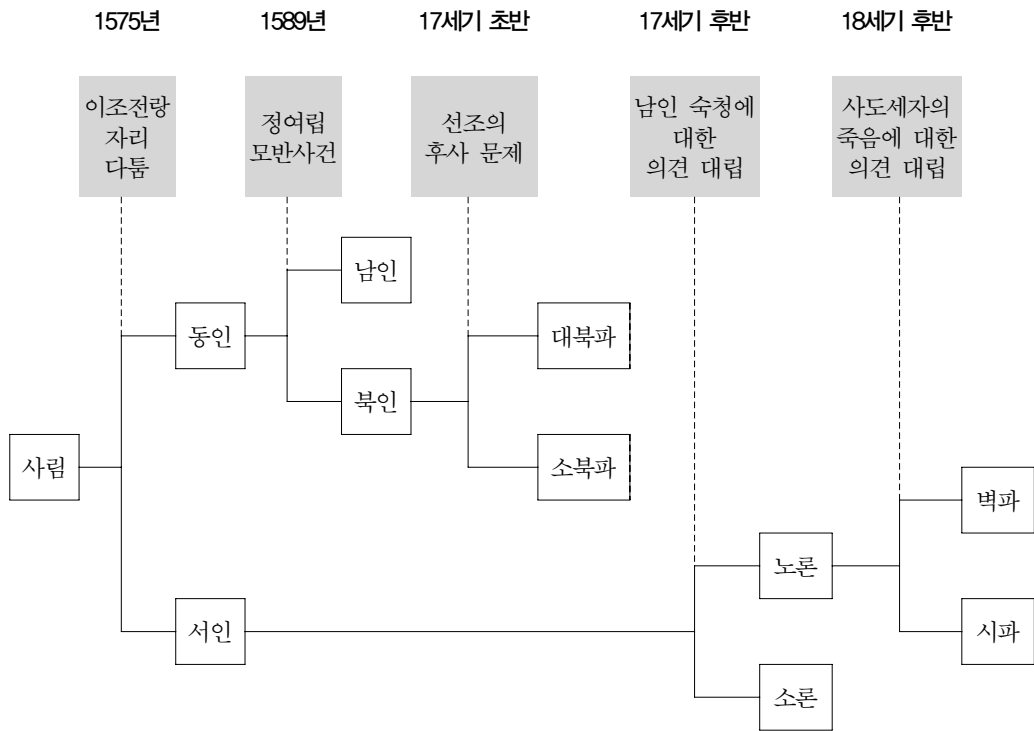
5) 붕당이란 학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붕당정치란 과거에 관료들이 이러한 붕당을 이루어 파벌을 형성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던 일을 일컫는다.

6) 명현(明賢)을 위한 제사를 행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만든 사설기관(私設機關)이다.

7) 양반층이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지방의 자치적 말단조직 또는 그 규약이다.

『곽우록(藿憂錄)』⁸⁾의 「붕당론(朋黨論)」에서 “이(利)가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곧 2개의 당(黨)을 이루고, 이가 하나이고 사람이 넷이면 4개의 당을 이룬다”며 붕당 정치를 경계했다.⁹⁾ 붕당의 복잡한 분파와 대립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의 붕당정치〉



1575년,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시대에 이조전랑(吏曹銓郎)¹⁰⁾ 자리를 두고 사림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게 된 것이 붕당 간 갈등의 효시다. 붕당 정치 초기에는 대체로 동인들이 정치를 주도했으나, 동인은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 사건¹¹⁾을 계기로 또다시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대해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8)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논한 책이다.

9) 이익, 1992, 『이익 곽우록』, 이익성 역(서울: 한길사)을 참조했다.

10) 이조전랑은 중앙 부서 6조 중 하나인 이조(吏曹)의 관직으로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합쳐 부른 말이다. 비록 관직이 낮았지만 여론 기관인 삼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서 그 권한이 매우 강했다.

온건하게 처리하지는 쪽과 강경하게 대처하지는 쪽으로 갈라지면서 동인은 또다시 온건과 남인(南人)과 강경과 북인(北人)으로 갈라지게 된다.

선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광해군 시대에는 북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임진왜란 과정에서 주전론(主戰論)¹²⁾을 주장하며 의병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인은 이후 선조의 후사 문제로 광해군과인 대북(大北)파와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소생 영창대군(永昌大君)과인 소북(小北)파로 또다시 분열된다.

이후 서인이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¹³⁾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쥐게 되면서 봉당 정치에서 북인은 사라지고, 서인 주도 하에 남인이 야당 세력으로 서인을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남인과 서인은 상례 문제를 둘러싸고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해 예송논쟁(禮訟論爭)¹⁴⁾을 벌여 두 차례 또다시 대립했다.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¹⁵⁾ 이후 서인은 남인 숙청에 대한 의견 상의 대립으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나뉘고, 노론은 다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로 나뉘었다. 당시 강경 벽파는 국책에 반대했고 온건 시파는 주요 정책에 동의하는 형국이었다.

조선 후기는 이와 같이 정치 세력 사이에 다툼이 빈번한 시기였다. 끝없는 봉당의 갈등으로 인해 하나의 국책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정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쟁(政爭)의 연속이었다.

11) 동인은 서경덕(徐敬德), 조식(曹植), 이황(李滉)을 따르는 학파이고 서인은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을 따르는 학파인데, 정여립은 본디 서인이었으나 동인이 집권하자 동인의 편에 섰다. 이 과정에서 정여립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또한 그가 동인과 조직한 대동계(大同契, 1589년 정여립이 만든 모반 단체)가 밀미가 되어 역모죄를 쓰게 된다.

12) 주전론은 전쟁하기를 주장하는 의견이나 태도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화론(主和論)이 있는데, 이는 전쟁을 피하고 화해하거나 평화롭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의견이나 태도를 일컫는다.

13) 1623년 4월 11일에 이서(李瑞)·이귀(李貴)·김유(金瑬) 등 서인(西人)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 이종(李倧)을 왕으로 옹립한 사건이다.

14)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상례(喪禮)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이다. 예송은 두 차례 일어났는데, 1차 예송은 1659년(효종 10년)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복상을 서인의 뜻에 따라 만 1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남인 허목(許穆)·윤휴(尹鑄)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2차 예송은 1674년(현종 15년) 효종의 비가 죽자, 다시 조대비의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당시 집권층인 남인은 만 1년을 주장했고 서인은 8개월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15) 경신환국(庚申換局)이라고도 하며 남인 일파가 정치적으로 서인에 의해 대거 축출된 사건을 일컫는다.

II. 『광해군일기』를 통해 살펴본 설득과 수사¹⁶⁾

광해군이 명·청 교체기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중립적 실리외교를 펼 것은 주목할 만하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파병과 수차례의 원정으로 재정 및 군사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반면 그들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은 누르하치(努爾哈赤, 1559-1626)가 후금을 이끌며 점차 강성해졌다.¹⁷⁾ 이런 관계 속에서 광해군은 명분이나 기존의 관습이 아닌 철저한 실리를 추구했는데, 이는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 파병을 요청했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명나라가 여진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조선에 병력을 요청했던 당시에는 비변사(備邊司)¹⁸⁾를 중심으로 사대부들 사이에서 명나라를 천조(天祖)의 나라로 여기고 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운 것에 대해 재조지은(再造之恩)¹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²⁰⁾ 따라서 조정에서는 조선은 소방(小邦)²¹⁾으로서의 당연한 예의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명의 요청에 즉각 출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경솔히 정벌하려 하지 말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²²⁾고 말하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명분이 아닌 실리적 측면에서 명나라와 후금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실리외교 정책을 강조했다. 명나라에 예의를 다하면서도 후금이 강성해지고 있는 기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광해군과 비변사의 신료들 사이에 수차례의 상소와 공론이 오간 후 광해군은 일단 명나라에 1만여 명의 군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광해군은 강홍립(姜弘立)²³⁾에게 비밀 교지를 내렸는데, ‘후금과 대적하지 말고 형세를 보아 현명하게 항배를 정하라’²⁴⁾는 내용이었다. 심하전투²⁵⁾에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후금의 군대에 대패

16) 여기에서 정리하는 광해군 시대의 역사는 박시백, 2008,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11 광해군일기』(서울: 휴머니스트), 한명기, 2000, 『광해군』(서울: 역사비평사), 계승범, 2005,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조선시대사학보』제34호, 5-33쪽, 계승범, 2007,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역사학회보』제193집, 1-37쪽, 한명기, 2002, “광해군(光海君) : 외교의 ‘빛’과 내정의 ‘그림자,’” 『한국사시민강좌 제31집』, 62-78쪽을 주로 참조했다.

17) 누르하치는 부족을 통일해 후금을 세웠고 후에 후금은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었다.

18) 조선 중·후기 군사업무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의 문제를 토의하던 최고 문무합의기구이다.

19) 재조지은(再造之恩)이란 ‘거의 멸망해가던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를 뜻하며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준 것에 대한 은혜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20) 『광해군일기』 10년 4월.

21) 소방(小邦)은 조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22) 『광해군일기』 10년 4월.

23) 강홍립은 광해군의 신뢰를 받아 후금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자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일단 후금에 항복했다.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 일행은 이후 광해군과 개인적인 서신교환을 통해 후금의 동정을 알려주었다. 후금의 누르하치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부터 파병 지원을 받은 조선 입장으로서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후금은 조선의 태도가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명나라와 일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여서 조선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이 광해군은 즉위 이후 복잡한 동북아 패권 다툼 속에서 실리외교를 펼쳐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 역사적 예증의 수사법

당시 광해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이전의 역사를 참고했다. 한반도 북쪽의 복잡한 주도권 다툼 상황에서 외교 노선을 정할 때, 광해군은 임진왜란과 고려시대의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이를 인용했다.

심하전투에서 강홍립이 투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변사는 명나라와 교(交)하지 않고 대국의 원수와 화친을 맺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대를 들며 여론을 잠재웠다. 그는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힘이 있다면 경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서신을 불태우거나 의리에 따라 타이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지금 그럴 만한 힘이 없다. 단지 고상한 말로써 그들을 꺾으려 하면 반드시 위망(危亡)할 것이다. 임진년에 왜의 서신에 답할 때가 바로 이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큰 병란은 이렇게 초래된 것이다. 전철이 멀지 않다”²⁴⁾라고 말하며 “다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²⁷⁾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의 가르침으로 삼는 반면교사(反面教師)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해군은 고려의 역사에 관심이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조선이 취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고려의 예에서 찾았다. 광해군은 “요나라와 금나라가 강성했을

24) 『광해군일기』 11년 3월.

25) 1619년 명나라에 쳐들어오는 후금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까지 참전한 대전투로 이 전투에서 명나라가 크게 패했다. 이로 인해 명나라의 쇠퇴는 가속화 되었고 후금은 만주 지역을 차지했다. ‘사르후전투’라고도 한다.

26) 『광해군일기』 11년 3월.

27) 『광해군일기』 11년 3월.

때도 고려는 송과의 관계에 목매지 않고 등거리 전략을 취했다. 이것이 고려의 생존전략이었다”²⁸⁾라고 말하며 “이럴 때는 안으로 스스로를 강화하며 밖으로는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고려가 했던 것처럼 한다면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²⁹⁾이라고 말했다. 명·청 교체기의 상황에서 조선의 현명한 역할을 고려의 역사 속에서 찾는 등 역사적 사실을 들어 신하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위한 수사학적 방편의 하나로서 예증법을 강조하였는데, 앞서 일어난 사실을 인용하는 ‘역사적 예증법’과 우화 등을 통해 예증 자체를 만들어내는 ‘허구적 예증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³⁰⁾ 광해군이 신하들에게 임진왜란과 고려시대의 역사를 예로 들어 설득했던 것은 역사적 예증법을 통한 수사기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예증법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정책을 숙의(熟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예증을 통해 과거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역사적 예증법은 이미 결과가 존재하는 사례를 예로 든다는 점에서 설득 대상자의 수긍을 이끌어 내기에 용이하다.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결과를 유추할 수 있도록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박 기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오늘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상 가능하게 하며, 상황과 결과의 관계를 일반화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조선 시대에 지방 유생들과 조정의 대신들이 올린 상소에서도 왕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¹⁾ 이들은 역사적 사실이나 경전에 있는 말을 적재적소에 구사해 왕이 과거의 사례를 본으로 삼아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설득 상황에서 역사적 사례나 일화를 예증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결과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줌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28) 요(遼)는 10-12세기에 거란이 중국 북방에 세운 왕조로 당시에 연운16주(燕雲十六州)를 획득하는 등 급격한 기세로 성장했다. 이후 1125년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요나라를 정복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고려후기, 송나라가 쇠퇴하고 요나라와 금나라가 강성해지던 시기에 고려는 기존의 송과의 관계 유지에만 집착하지 않고 요나라 및 송나라와 등거리 외교 전략을 구사해 실리를 챙겼다.

29) 『광해군일기』 13년 6월.

30) 예증법에 대한 내용은 강태완, 2010, 『설득의 원리』 (서울: 페가수스), 101-107쪽을 주로 참고하였다.

31) 오인환·이규완, 2003,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 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 제47권 제4호, 5쪽.

2. 실리를 위한 설득

조선시대에는 명분외교와 실리외교를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 비변사의 관료들은 성리학적 이론에 근거해 마땅히 조선이 명의 신하국으로서 예를 갖추어야 하고 명에 군사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광해군이 사용한 전략은 조선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명분이 아닌 실리 추구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었다. 이 때 광해군은 명분외교는 감정외교이며, 실리외교야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외교라고 보았다.

관료들은 “여진은 우리의 부모의 원수고 형세로는 표범이나 범처럼 흉악한 존재 이옵니다. 하오나 표범과 호랑이가 아무리 포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어찌 부모를 버리겠나이까?”³²⁾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때 광해군은 “경솔히 정벌하려 하지 말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³³⁾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는 “평소에 중국처럼 병농을 분리해 군사를 양성했다라면 하루아침에 영을 내려 저녁에 출발할 수 있었을 것이나, 훈련받지도 못한 약졸을 억지로 징발해 몰아 보낸다면 압록강을 건너기도 전에 변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³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모름지기 대국을 섬기는 일도 물론 해이해지면 안 되겠지만, 기세가 왕성한 이적들을 잘 미봉해야 한다”³⁵⁾라고 말하며 실리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것은 ‘대국적인 부자의 의리’만을 내세우며 명의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한 비변사의 입장과는 달리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실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설득이란 무릇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그 과정이 자칫 감정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설득의 과정에서는 설득의 궁극적 목적을 상기하고, ‘웅당 그러해야 한다’는 식의 명분 논리나 감정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리적 설득의 틀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해군은 당시 명·청 교체기라는 불안한 대외 정세 속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의 현실을 파악하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국가의 실리를 추구했던 군주였다고 할 수 있다.

32) 『광해군일기』 10년 4월.

33) 『광해군일기』 10년 4월.

34) 『광해군일기』 10년 4월.

35) 『광해군일기』 10년 4월.

Ⅲ. 『정조실록』을 통해 살펴본 설득과 수사³⁶⁾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개혁군주로 불린다. 제21대 왕 영조(英祖)와 함께 ‘영·정조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정조 시대에는 규장각(奎章閣)³⁷⁾ 설치, 화성(華城)³⁸⁾ 축조, 금난전권(禁難塵權) 폐지³⁹⁾ 등 다양한 사회 개혁 정책이 실시되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방식과 그가 펼쳤던 탕평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설득과 수사법을 살펴본다.

정조는 정치를 의국론(醫國論)의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는 정치를 ‘나라의 병을 다스리는 일’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서 증세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것이 진실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⁴⁰⁾ 혹은 “대저 나라의 병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병에 걸린 근원을 알고 증세에 대응하는 약을 써야 한다”⁴¹⁾라는 기록이 의국론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당대를 “마치 큰 병이 든 사람이 전원이 허약하여 혈맥이 막혀 버리고 흑이 불거지게 된 것과 같은 꼴”⁴²⁾이라 말하기도 했다.

한편 탕평(蕩平)⁴³⁾이란 조선 후기에 지나친 당파 싸움을 막기 위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한 정책으로 정조는 분열된 붕당정치 속에서 탕평책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정국을 균형 있게 이끌고자 했다. 이하에서는 의국론에 기초한 정조의 수사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탕평론에 근거하여 제3자를 함께 등용시킴으로써 의견 대립 시 정국 구도의 조화를 추구했던 정조의 모습을 살펴본다.

36) 여기에서 정리하는 정조 시대의 역사는 박시백, 2010,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16 정조실록』(서울: 휴머니스트), 이덕일, 2008, 『정조와 철인정치의 시대』(서울: 고즈윈), 박현모, 2003, “정조의 탕평정치 연구2: ‘의국론’의 관점에서 본 정조의 리더십,” 『정신문화연구』제26권 제1호, 153-175쪽, 박현모, 2000, “정조의 탕평정치 연구: 성왕론의 이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제34권 제1호, 45-62쪽을 주로 참조했다.

37) 조선시대의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었다.

38)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園)을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다.

39) 금난전권이란 조선 후기에 시전상인이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 정부와 결탁하여 난전을 금지할 수 있었던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권한으로 인해 영세 상인층과 세궁민(細窮民)들의 삶의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정조 15년 금난전권은 폐지된다. 이 조치를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부르기도 한다.

40) 『정조실록』 1년 10월.

41) 『정조실록』 11년 11월.

42) 『정조실록』 2년 6월.

43)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나온 말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1. 비유의 수사법

정조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비유적이다. 정조는 정치를 ‘나라의 병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해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신하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경직되고 직설적인 논박의 장에서 유연하게 관료들을 설득시켜 의견을 규합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정치의 이상향’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의술에 구체화하여 비유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조가 조선의 부흥을 이끌게 된 것에는 권위의 언어가 아닌 쉽고 구체적인 대상에 비유하는 수사법을 통해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바탕이 되었으리라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비유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보다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라는 점에서 상대의 감정적 동화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정조는 신하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의국론의 관점을 견지했다. 정조 4년 정언(正言)⁴⁴⁾ 심낙수(沈樂洙)와 홍국영(洪國榮)이 갈등한 사건이 있었다. 심낙수는 정조에게 홍국영의 죄를 밝히기를 청하면서, 홍국영과 가까이 지내던 송환억(宋煥億)⁴⁵⁾을 먼저 변방으로 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⁶⁾ “지금의 세상을 보면 치세(治世)라고도 할 수 없고 난세(亂世)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칠 때에 병이 열에서 원인하여 온몸에 단독이 퍼졌으면 먼저 정수리에 침을 놓아 독열을 빼는 것처럼, 신은 송환억을 오늘날 세도의 정수리로 생각하여 침 한 대를 놓기를 바랍니다.”⁴⁷⁾라고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정조는 “나는 정수리에 침을 놓는 것은 장년의 병에 시험해야 하고 늙은 사람의 기력이다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약이 증세에 맞지 않으면 앓는 사람을 죽음으로 재촉하는 꼬투리가 되기에 알맞다. 나라를 고치는 것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⁴⁸⁾라고 답했다. 즉 조선과 같이 노쇠한 환자에게는 정수리에 침을 놓는 것보다 먼저 환자를 안정시키고 원기를 보충하는 처방이 우선이라는 뜻이었다.

심낙수가 홍국영의 죄를 밝히기를 청했을 때 정조가 의국의 비유를 사용한 사례는 상대방을 설득함에 있어 비유적인 부드러운 표현 속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할 필

44) 조선시대 언론기관인 사간원에 속한 정6품 벼슬이다.

45) 송환억은 영조시대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오른 문인이다. 홍국영은 송시열의 후손인 그를 정조에 불러 중용했다.

46) 홍국영의 가문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척 세력으로 깊이 뿌리내린 가문이었다. 이에 홍국영은 기세등등하여 권력을 휘둘러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귀양을 보내기도 했다. 홍국영의 행실이 파국에 달하자 심낙수는 홍국영을 단호히 처단할 것을 정조에게 청한다.

47) 『정조실록』 4년 3월.

48) 『정조실록』 4년 3월.

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2. 탕평을 통한 정국 구도의 조화

정조는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조선 정치에 한의학 용어인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처방’과 ‘군신좌사(君臣佐使)⁴⁹⁾의 처방’을 내린 바 있다. ‘이열치열의 처방’은 한 당파에서 반역자가 나오면 반대 당파의 반역자와 대비시켜 다스리고, 한 당파에서 충신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당파의 충신과 대비시켜 표창하는 일종의 대국(對局)의 통치 방식이다. 정조는 즉위년(1776년)에 외척 간의 다툼이 심할 때는 공홍파와 부홍파라는 두 외척 세력을 대비시켜 대역부도죄로서 한꺼번에 제거했다. 이를 두고 후에 정조는 “병신년(즉위년)에 역적을 다스리면서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 (후략)”⁵⁰⁾ 라고 회상한 바 있다. 집권 중반기에 노론이 천주교와 관련된 남인계를 공격하자 ‘문체반정(文體反正)’⁵¹⁾을 통해 노론계 신하들의 학문풍조를 견제했다.⁵²⁾

주목할 만한 것은 ‘군신좌사의 처방’이다. 그는 “지금의 폐단을 구원하려면 어찌 대승기탕(大承氣湯)에 좌사(佐使)의 두 맛을 가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⁵³⁾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세력(君)과 반대하는 세력(佐)이 맞서는 가운데 제3의 세력(使)을 등장시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인사 방식이다.⁵⁴⁾

49) 군신좌사는 본디 한약처방의 기본원리를 일컫는 것으로, 약제를 조제할 때 ① 그 병을 주로 다스리는 약재를 군(君)이라 부르고, ② 그 약재를 곁에서 도와주는 성분의 약재를 신(臣)이라 한다. 이 외에도 좌, 사의 약재를 함께 써서 치료효과를 증강시킨다. ③ 좌(佐)는 주병(主病) 외에 겸병(兼病)이 있을 경우 이를 치료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군(君)의 독성과 준열(峻烈)함을 억제하기 위해 군약과 상반되는 성분으로 쓰이기도 한다. ④ 이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使)도 함께 쓴다(홍원식, 『黃帝內經素問』至眞藥大論 제74(5)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이상인 외, 1990, 『方劑學』(서울: 영림사), 25-26쪽).

50) 『정조실록』 17년 5월.

51) 문체반정은 정조가 당시 유행하던 소설체 문장을 잡문체라고 규정하고 전통적인 고문을 문장의 모범으로 삼도록 한 정책이다. 연암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와 같은 문장들을 파관소품(稗官小品)이라 규정했는데 이것은 남인 천주교 신자에 대한 노론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박지원을 일종의 볼모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였다.

52) 박광용, 1984,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 『한국사론』제10권, 235쪽을 참조했다.

53) - 대승기탕이란 감기와 같은 열성 질환에 급히 열을 내리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한의학상의 처방을 일컫는다.

- 『정조실록』 17년 4월.

54) 박현모, 2003, “정조의 탕평정치연구2: ‘의국론’의 관점에서 본 정조의 리더십,”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1호, 168쪽을 참고했다.

다시 말해 좌사를 가미시켜야 한다는 것은 반대 세력과 제3세력도 골고루 등용하여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탕평 정신에 입각한 인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위년 9월 초기 제학으로 노론의 황경원(黃景源), 소론의 이복원(李福源), 직제학은 노론의 홍국영(洪國榮)과 남인 유언호(兪彦鎬)를 뽑았고, 그 후에 남인 채제공(蔡濟恭), 노론 김종수(金鍾秀) 등을 추가했다.⁵⁵⁾ 이처럼 그는 공평하게 노론, 소론, 남인 등의 정파에서 다양한 인재를 골라 선발했다. 재위 12년(1788년)에는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드러나자 곧 세 당의 색깔을 뒤섞어 노론의 김치인(金致仁)과 소론의 이성원(李性源), 남인의 채제공을 삼정승에 임명하는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정조실록』 12년 2월 기록에는 정조가 “붕당이 생긴 이래 삼정승이 오늘과 같은 적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듯하다. 이번 일로 나는 자부하는 바가 있다. 경들은 모름지기 각자 마음을 다해 나로 하여금 공효(功效)⁵⁶⁾를 볼 수 있게 하라”⁵⁷⁾와 같이 자평한 대목이 있다. 또한 집권 중반기에도 노론의 김종수를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고, 남인 채제공을 좌의정에 승진시켰으며, 소론 세력인 이재협(李在協)은 영의정에 승진시켰다.⁵⁸⁾

두 의견이 극심히 대립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등용해 활용한 ‘좌사를 함께 쓰는’ 정조의 인사 정책은, 오늘날 각종 분쟁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IV. 맺음말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의 리더십 「(上)」과 「(下)」 두 편에 걸쳐 역사에 기록된 설득과 수사의 순간을 살펴보았다. (上) 편에서 살펴본 태조와 세종 시대에는 설득 및 수사가 국가 초기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대신들의 의견을 유연하게 규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번 호에서 살펴본 광해군과 정조 시대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붕당정치의 다양한 의견

55) 이상각, 2007, 『조선의 이노베이터 이산 정조대왕』(파주: 추수밭), 132쪽.

56)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를 의미한다.

57) 신동준, 2007,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서울: 살림), 487-488쪽.

58) 『정조실록』 13년 9월.

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광해군의 역사적 예증을 통한 수사법과 실리의 설득법, 정조의 비유의 수사법과 탕평 인사정책을 통한 조화와 균형의 추구는 위기를 타파하고 정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이루어졌다. 광해군이 현명한 외교 노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명분이 아닌 실리를 강조하며 반대 세력을 설득한 것은 조선이 명·청 교체기의 패권 이양 가운데에서 어느 한 쪽에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조선 나름의 독자적인 위치를 잡는 데 일조했다. 정조가 조선 후기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는 데 활용한 비유와 탕평책은 붕당이 난립한 가운데에서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민생임을 상기시켰다. 조선 후기 두 군주의 모습에서 착안할 수 있는 설득과 수사의 요소들을 되새겨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대립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겠다.